

“군산공항 정상화 대책 마련”

군산~제주 운항 중단 소식에 발끈, 성명 낸 군산시의회 “전북권 하늘길 끊겨 항공오지 전략... 정부 대응책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1일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군산~제주 노선운항 중단 소식에 정부는 군산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스터방공과 제주항공간 기업인수합병 무산과 대한항공이 적자노선 이유로 군산~제주 노선운항을 중단하면 전북은 하루아침에 하늘길이 끊겨 항공오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군산은 조선·자동차 산업의 붕괴 등 각종 악재에 이어 코로나19 피해까지 겹치면서 군산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제주 운항중단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암흑도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는 “정부 또한 군산공항 운항중단사태 방지 및 외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1,600여명의 항공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산공항이 정상적으로 비행기가 운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성명서를 대통령,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 송부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의회는 11일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군산~제주 노선운항 중단 소식에 “정부는 군산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익산시는 11일 농업인교육관에서 기초농업기술교육생 6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 심화과정을 개강했다.

익산시, 성공적인 농촌생활 정착 지원

귀농귀촌 교육... 현장실습 등

익산시가 귀농·귀촌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11일 농업인교육관에서 기초농업기술교육생 6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 심화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과정은 농업경영, 원예특작 재배기술 청년귀농 우수사례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농업 분야 이론교육과 농기계 현장실습, 선도 농가 벤치마킹 및 농산물가공 현장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10월까지 총 14강의 체계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장양원기자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 기본교육과정을 실시해 평균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로 7월 수료식을 마쳤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교육은 변화하는 농촌문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자세를 확인하고 명확한 자기 비전을 수립해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교육관 출입구에서 체온 체크와 교육생 마스크 착용, 손소독, 2M 안전거리 두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할 가운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코로나 극복 기부행렬 이어져

신일라이팅 1000만원 성금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주)신일라이팅 컨소시엄(대표 손승호, 손덕익)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주)신일라이팅 컨소시엄(제조사(주)신일라이팅, 시공사 제이에이치산업(주), 운영사 캡코에너지솔루션(주))은 지난 2019년 군산시 가로등 임대용

역사업을 진행 향후 7년간 군산시 가로등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대표사인 (주)신일라이팅은 지난 2012년 설립되어 고객만족과 친환경을 바탕으로 제품에 정성을 기울여 작년 기술개발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LED(조명기구, 가로등 보안등) 등 일방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이다.

기탁서에 참석한 배주범 신일라이팅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많은 것 같으며,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로 전개해 우리 이웃들에게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날 군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황성덕) 소속 가족자원봉사단(단장 조은숙)도 수제 면마스크 800장(한가역 400만원 상당)을 제작해 군산시에 기탁했다.

지난 2011년에 결성해 현재까지 지역 사회 내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 해온 조은숙 가족자원봉사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면역력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고자 봉사단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며 기탁한 성품이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푸드플랜’ 윤곽

용역 최종보고... '미래먹거리 종합계획' 기틀 마련

익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11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유재구 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시행사인 (협)지역농업네트워크 김현일 이사장은 익산 먹거리 미래비전인 ‘생산지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이 행복한 익산시 미래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토대로 6대 전략, 10개 전략과제와 7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을 제안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주체 설립에 착수한다.

또한 생산기관 및 유통시설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공모

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시가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4월 농식품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지역농업 현황 분석과 푸드플랜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했다.

그동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내실 있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행정과 민간이 용역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해왔으며 관련 전문가와 생산농가의 의견이 최종 용역 결과에 반영됐다.

정현을 시장은 “도농복합형 익산시 푸드플랜을 조속히 정착시켜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중소농 위주 지역 소비체계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메이드마켓 외부공간 플라마켓형 참여자 모집

군산메이드마켓에서 외부공간에 매대 운영을 담당할 청년 참여자를 모집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시간여행마을에 새롭게 조성한 수제창작플랫폼 ‘군산메이드마켓’ 외부공간에서 매대 운영을 담당할 청년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플라마켓형 참여자 모집분야는 먹거리와 패브릭 공예를 제외한 모든 수제창작분야로, 선정된 청년창업가들에게는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을 비롯하여 군산메이드마켓 내 공동작업장 및 공동기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0세의 최근 3년 이내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454-439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기자

익산시, 소통행정 강화

정현을 시장이 지역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정 시장은 11일 인근 시군과 접경지역에 위치한 춘포면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한 춘포면 구담마을은 전주시 도도동과 인접해 있으며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가 이전하기로 예정돼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어 문종마을은 인접 심대읍에서 대규모 추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심각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날 현장에서 춘포 구담마을 한 주민은 “전주 항공대대가 전주 도도동으로 들어온 후 새벽부터 들리는 군용기 굉음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주대대까지 이전하면 춘포 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 보석박물관서 어린이 직업체험 ‘키자니아 go’

15~17일... 치과 등 5개 부스

광복절 황금 연휴를 맞아 익산 보석테마관광지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익산시는 지역의 대표관광지인

보석박물관에서 여름휴假的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 ‘키자니아 go’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에 ‘키자니아 go’의 5개의 부스가 보석테마관광지-보석박물관에 설치돼 가족단

위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설치되는 체험 부스는 소방재난본부의 화재구조단, 과학수사대 CSI, 동물병원, 뷰티실롱, 치과 등 5개이다.

보석박물관 입장 티켓 1장으로 어린이 2명이 체험할 수 있고 어린이 1명당 3개의 직업체험이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